

사 실 은 이 령 습 니 다 !

KCDC 팩트체크

‘정말 안전한가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편





온라인 속 질병관련 유언비어 및 잘못된 정보의
사실성을 검증해 드리는 KCDC 팩트체크,

오늘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편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백신은
오랫동안 안전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부작용이 많다는데 꼭 맞아야 하나?

네.

HPV 백신 부작용은 접종 부위 통증처럼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고,
통증에 의해 일시적으로 실신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접종 후 20~30분 누워있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암 예방을 위해 꼭 맞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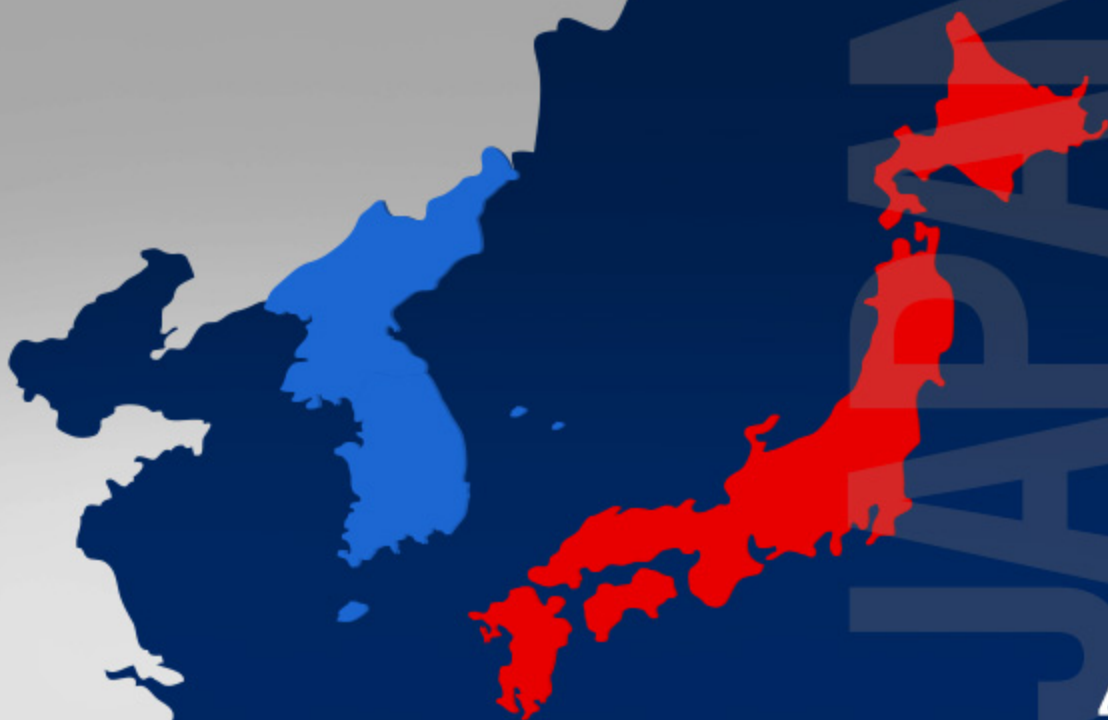
* 국가예방접종 시행 후 등록된 434,847건 중 이상반응 의심 신고 32건(0.007%),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이상반응 신고 0건 (2017년 6월 기준)



일본에서 심각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던데요?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고된 복합부위통증 사례가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과 다르고,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는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14년 2월, 7월)

* 일본의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예방접종추진전문협의회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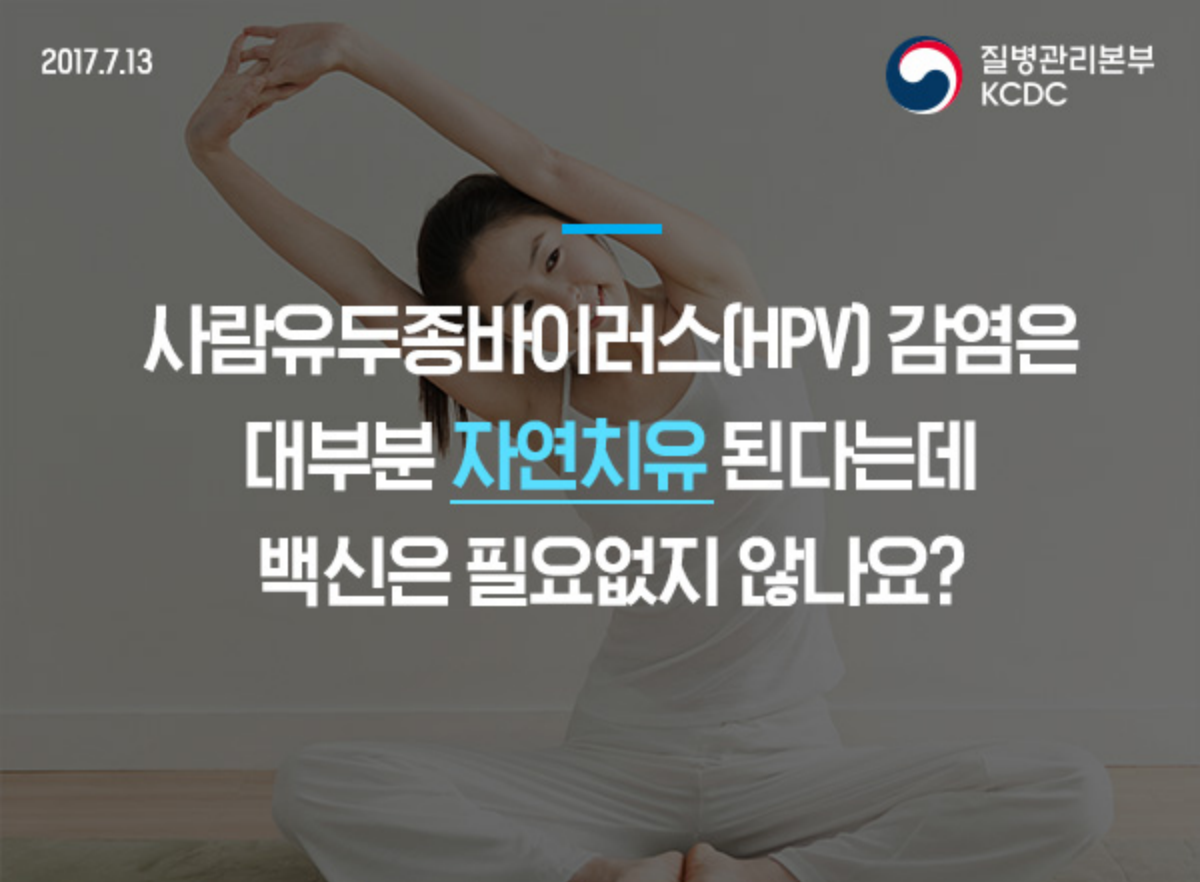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때문에
임신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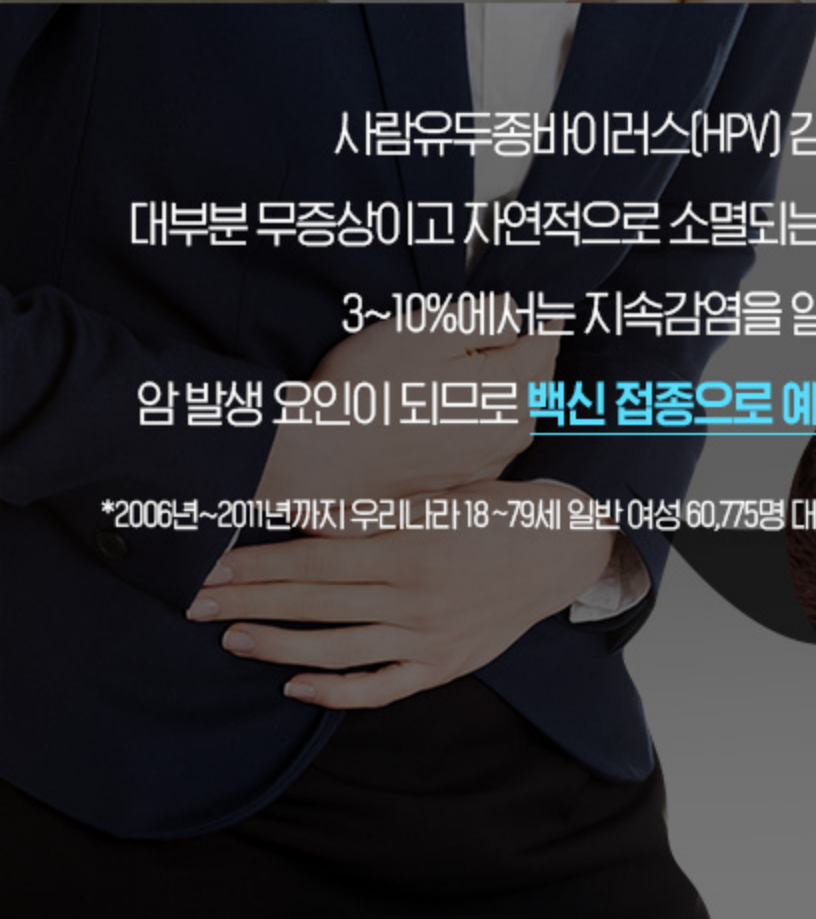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난소부전 증상이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고 공표하였으며,
오히려 암 예방 효과로 자궁경부암 치료과정에서
임신이 어렵게 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06~2015년까지의 이상반응 발생 신고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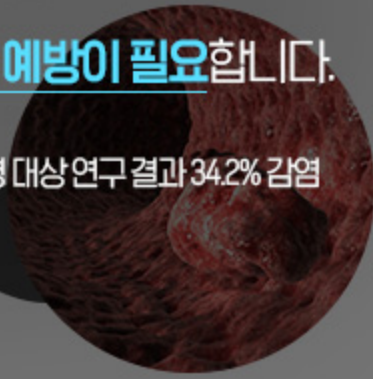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은 대부분 자연치유 되는데 백신은 필요없지 않나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대부분 무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켜
암 발생 요인이 되므로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필요합니다.

*2006년~2011년까지 우리나라 18~79세 일반 여성 60,775명 대상 연구 결과 34.2% 감염



예방접종 백신 성분에 발암물질이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백신에 첨가된 물질은 백신 생산에 필요한
극소량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을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와 관련된 루머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백신을 정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성' 인 만큼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예방접종으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자
예방접종관리과

전가은
사무관

질병관리본부 ‘팩트체크’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